

# 익산시, 주택 구입 시 파격적 지원

### 청년·신혼 부부·전입 시민 대상, 전국 최대 규모로 대출이자 현금 지원

익산시가 인구 허리층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사업으로 파격적인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을 펼친다.

30일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담 제로(Zero) 주택 구입 대출이자 플러스 알파(α)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혼과 출산 문화를 장려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목표량 150가구를 초과 달성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포함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했다.



폭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동과 송학동의 신축 아파트 입주자가 시작된 지난 9월은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달 들어서는 자연 증감을 포함해 인구 순증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신규 브랜드 아파트 공급에 힘입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 공급과 맞물려 기존의 건축 아파트 수요자에게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순환을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주택 구입 대출이자 플러스 알파(α) 지원'은 디딤돌 대출과 보증자리 론

(Loan),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현금 지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4년 이후 결혼한 가구나 익산 외 지역 거주자는 연 최대 6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300만 원에서 2배 확대된 규모다. 이자 지원 기간은 3년이다. 다만, 이 기간 아이를 낳으면 1자녀 가구는 1년, 2자녀 이상 가구는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돼 최대 3,0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준의 주거 안정 지원사업이다. 정부 지원 대출 금리가 1.0~3.0%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이자로 주택 구입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셈이다.

시는 주택 구매 외에도 전세와 월세,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와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무이자 용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시는 정부 주거 복지대상 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영석 부시장은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시점에 파격적인 이자 지원이 제 공돼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익산시가 모든 단계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만큼, 시민들은 저기에 알맞은 주택을 선택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익산시-조국혁신당, 정책간담회 개최

### 시 주요 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조국혁신당과 협력체계 구축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국혁신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30일 익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는 익산시 정현을 시장과 국소단장이 함께했으며 조국혁신당 소속 강경숙 국회의원, 정도상 도당위원장, 류인철 도당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익산에 연고를 가진 강경숙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운영 △글로벌대학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예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동물용의약

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강경숙 의원은 "익산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정책간담회를 통해 시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알게 돼 뜻깊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국회활동으로 바쁜 신 와중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강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비 확보에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지만 의원님께서 큰 힘이 돼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국회 예산 심의 기간에 국회 상주관을 운영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한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한국농수산물축제 '한농제' 참가

###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상담·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홍보

익산시는 30~31일까지 열리는 한국농수산물대학교 축제 '한농제'에 참가해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익산시는 우수한 예비 청년 농업인을 지역 유치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축제에 참가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11월 농수산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쌓아온 데서 비롯한 결과다.

시는 한농제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지원, 농업기계 자율주행 기술도입 지원 등 익산시의 특별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익산에 정착한 졸업생 선배들이 홍보 활동에 가세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하는 가공품을 전시해 재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쌀쌀한 가을철, 군산서 '2024 짬뽕 축제' 열린다

### 내달 1~2일 장미동 짬뽕 특화거리 일대서 개최... 다양한 공연·맛집 부스·체험 행사 마련

'군산짬뽕' 먹거리 관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짬뽕페스티벌이 오는 11월 1일~2일 이틀간 짬뽕 특화거리(장미동 동령길) 일대서 개최된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번 축제는 쌀쌀한 가을철 일근 화끈한 짬뽕 국물이 생각나는 날씨에 맞춰 시민과 관광객에게 '군산짬뽕'의 진수를 선보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첫날인 11월 1일에는 오하나합창단의 시전 공연으로 성공적인 개막을 알린다. 이후 추여의 인기가수들이 총출동한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90년대 인기 드라마 '질투'의 주제가를 부른 유승범, '사랑하기에'의 이정석 '걸어서

하늘까지' 장현철이 등장하여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연이 끝나면 짬뽕을 주제로 한 영상 공모전 (1분 영상제)과 <군산짬뽕 인생1컷>의 시상식이 진행된다.

행사 기간 내내 축제의 주인공인 짬뽕을 맛볼 수 있는 맛집 부스에는 짬뽕 특화거리 내 입점된 9개소와 군산의 4개의 짬뽕집이 참여한다.

여기에 세계 이색 짬뽕으로 유명한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4개국 이 참가해 본토 국물 요리를 선보인다. 축제 기간 군산의 종식당 업소를 방문하고 3만 원 이용 영수증을 가져오면 선착순 기념품을 제공하는 <군산짬뽕 어디까지 가봤니?> 기획 행사도 기

대할한다.

이외에 불거리 및 참여 행사로 △짜장파 짬뽕이 대결하는 맛대맛! △1분 동안 짜장면을 얼굴에 안 묻히고 끝까지 먹는 어린이 선발대회 '어린이 깡뽕이' △짬뽕 면 만들기 체험 소원홍 등만들기 △숨사탕만들기 △베어로 풍선아트 △축제공예 △짬뽕이 페이스트레팅 △짬뽕 포토존 등이 진행된다.

시는 대대적인 축제 홍보를 위해, 군산짬뽕 영상 공모전, 짬뽕송, 영상다큐 등을 제작·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국 수도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게릴라 홍보팀도 운영중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내가 디자인 한다'

### 군산시, 농업인 브랜드 개발·포장디자인 교육 수료식 및 품평회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농업인 셀프 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 수료식 및 품평회를 30일 개최했다.

홍소평 등 매체를 통해 상품의 실물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판매방식이 보편화된 시대를 맞아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경쟁력 있는 포장디자인 개발과 개선을 위한 비교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백화점의 명인 명촌관, 친환경·유기농식품 전문매장, 농식품 전문 디자인회사 등을 방문하여 상품 유통·마케팅과 직결되는 포장디자인을 연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시는 통일성 있는 패밀리 룩을 적용한 가시성 높은 디자인, 생산자와 생산자의 자부심과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군산시 농산물 생산 농가 및 농식품 가공업체 10개소가 참여한 이번 교육은 (주)시우디자인센터 노시우 대표가 10월 8일부터 6회차에 걸쳐 강의를 진행했다.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내가 디자인 한다'라는 교육 목표 아래, 참가자들은 스스로 생산품의 주제를 찾고, 전체 제품의 통일된 느낌 구축을 통해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디자인한 브랜드를 일일 명품부터 제품별 포장재까지 샘플 제작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브랜드 상표 출원과 품평회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내달 1일 2024년

### 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막

군산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지역 내 우수한 수산물(식품)의 판촉과 홍보를 위해 '2024년 수산물(식품)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거래 장터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근대역사박물관 옆 주차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 기간은 '군산 짬뽕 페스티벌' 행사 기간과 겹쳐 상호 홍보 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협, 수산물 유통 가공업체가 참여하며 군산 참총어, 간장게장, 양념 젓갈, 꽃새우 등 다양한 수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시는 판매와 함께 시식회, 홍보도 병행하면서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특화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관내에서 열리는 마지막 수산물 직거래 장터이기도 한 '2024년 수산물(식품) 직거래 장터'는 △주민과 방문객에게는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 제공 △홍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의 인지도 확산 △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장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국제라이온스협회

### 봉사·나눔 문화 확산 나서

익산시가 국제라이온스협회와 봉사·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익산시는 30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총재 정기정) 익산지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과 정기정 총재 간 협약을 시작으로 29개 읍면동과 17개 클럽의 일대일 결연 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간 2회 이상의 복지후원사업과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